

# 남원시 보절면, 민·관·군 협력 피해복구 총력

### 이환주 남원시장, 현장 방문 수해 농가 위로 공무원·소방서·주민 등 200여명 복구 작업 실시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관)에서는 지난날 2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절면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340mm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지난날 2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4일에 육군제7733부대 조철훈 3대대장 외 20명의 군 장병들이 사촌마을 수해복구현장에서 용배수로 및 하천 내 토사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로, 지난날 29일 20~21시까지 시간당 46mm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 및 농작물 매몰 207개소 9.3ha, 주택 침수 4동, 양계장 침수로 인한 닭 36,000수 폐사 및 석축붕괴, 원에하우스 침수 9동,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용(배)수로 매몰 등 많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절면에서는 지난날 30일부터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공무원, 소방서, 파출소, 군부대, 주민 등 약200명과 굴삭기 20대, 크레인 1대, 덤프 1대 등 총 22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피해발생지역 복구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 현장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은 6월 30일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수해 농가를 위로하였고 지난 3일에는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 윤지홍 남원시의장 및 시의원들이 사촌마을과 피해 가금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육군제7733부대 조철훈 3대대장 외 20명의 군장병들이 사촌마을 수해복구현장에서 용배수로 및 하천 내 토사 제거 작업을 실시했으며, 성북마을 수해농가에서는 복구 작업을 나온 직원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해 주는 등 훈훈한 미담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천 허관 보절면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다면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수해현황을 파악,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서, 피해자 보호 협업 간담회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능 간 협업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기타 법적 지원 및 2차 범죄피해 예방 등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김제폭, 장마철 빗길, 보행자 사고 예방 홍보 활동 펼쳐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5일 김제 금구 금천마을회관과 요촌구수동마을회관을 방문,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2017년 김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1명 중 14명(66.7%)이 65세이상 노인층이며 특히 올해 7월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7명(70%)이 노인층으로 노인층 사망사고가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어르신들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김제소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무단횡단의 위험성, 야간 보행시 밝은옷 착용의 중요성'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홍보활동시 '전단지 및 아광반사지'를 배부(활용)하여 노인 사고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순창군, 식물 치유 통한 주민 소통 프로그램 '인기만발'

순창군이 운영하는 국화 분재동호회 활동이 참여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국화분재반이 불과 함께 수형을 잡는 석부작, 나무를 활용한 목부작 등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유인작업, 구도만들기 등 섬세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국화분재반은 분재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우는 것은 물론 식물을 키우면서 얻는 치유 기능이 더해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부안 서림지구대, 상습 침수구역 일제정비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김병곤)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주민 불안순찰을 통해 침수 구역 파악, 관내 침수 구역 일제 정비에 나섰다.



서림 지구대는 이번 정비는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구역 발생시 사고로 이어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침수지역을 통과시 과속하지 말고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경찰서, 수사과 베스트 수사지원팀 선정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수사지원팀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지원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베스트 수사팀'은, 전북경찰청 내 15개 경찰서 중 일선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수사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처리 평가 및 우수 사례별 중요도,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해 분기별 선발하고 있다.

특히 무주경찰서 수사지원팀은 최근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안만족도 조사분야 점수에서 도내 2위라는 높은 만족도를 달성, 수사실무관행 개선 및 송치사건 분석 등을 통한 수사기법 활성화 노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지역자활센터, 제철김치나눔 MOU체결

임실군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학성, 박만식)는 지난 2일 임실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중섭)와 '제철김치나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철김치나눔 사업은 지역 내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2종류의 제철김치를 총 8회에 걸쳐 협의체위원들이 직접 배달 및 안부도 물어보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다.

김학성 읍장은 "제철김치나눔 사업은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입맛도 살리고 반찬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협의체 위원들이 배달 봉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